

“국정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극복... 전력 다해주길”

문재인 대통령, 화상 국무회의 주재
민생 안정 대책 적극 추진 강조
정부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생 안정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

대면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는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

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는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

라.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각 부처도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달라”며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산, 지역 확산에 속도를 높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형 기자



싱가포르 국방정책차관보, 국방홍보원 방문 3일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을 찾은 테오 엔 디(뒷줄 오른쪽 둘째) 싱가포르 국방정책차관보와 관계자들이 매체 제작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조종원 기자

국민 84% ‘수도권 4단계 연장’ 찬성 코로나 불안감 11.4%p 늘어 89.6%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수도권 4단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84.0%가 찬성 의견, 12.8%가 반대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2%였다.

현행 거리 두기 조치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9월 말까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5.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코로나19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89.6%로, 11.4%p 늘었다.

이주형 기자

9월까지 계란 2억 개 수입...대형마트 등에 절반 이상 공급

정부, 추석 소고기 공급량 평시 대비 1.6배로 확대

정부가 내달까지 계란 2억 개를 수입해 계란 가격 안정에 나선다. 수입한 계란은 대형마트에 절반 이상 공급해 소비자 직접 판매를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 점검을 위해 대전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이마트 둔산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입 계란 물량을 8월 1억 개, 9월 1억 개 등으로 대폭 늘린다. 수입 물

량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전까지 수입 계란은 급식업체나 가공업체에 주로 공급됐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계란 공급 가격(30개 1판 기준)도 오는 5일부터 기존 4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계란 가격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서는 당분간 수입 계란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돼야 한다”며 “현재 7000원대에 정채된 계란 가격이 6000원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선물 수요 등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돼지고기는 1.25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태풍 대신 기습 폭우 자주 온다 8월 들어 ‘찌는 듯한 더위’로 변화

8월에 접어들면서 태풍보다 오히려 예측불허한 기습폭우가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기상청은 중기 예보를 통해 오는 12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은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태풍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태풍 예보가 없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점이다. 태풍 대신 당장 예측 불허한 기습폭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른 폭염과 짧은 장마로 발생한 열과 수증기가 현재 우리나라, 특히 제주 상층에 많이 몰려 있는 불안정한 상태다.

여기에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기압골에서 발생한 따뜻한 남서풍이 차가운 해풍과 만나 발생한 비구름대가 대기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흩어지지 못하고 곳곳에 집중적으로 폭우를 쏟아내고 있다.

기상청은 이러한 현상이 올해 여름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형 기자

올해 대체공휴일 8월 16일, 10월 4일·11일 확정

공휴일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

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